

데스크 팁



강성수 부국장 겸 사회부장

어릴 적엔 추석이 마냥 즐거웠다. 장년 이 된 지금처럼 각종 비용 등을 생각하거 나 연휴에 따른 일정을 조정할 일도 없어 그냥 자유스러웠다. 게다가 학교도 며칠 씩 나가지 않아도 되고, 평소 얼굴을 보 지 못했던 사촌들과 오랜만에 어울려 놀 며 예기도 나눌 수 있었다.

고향의 정으로 마음의 짐 훌훌 털어 내자

까지 했던 기억도 난다. 신작로를 달리던 버스는 자갈길에 통 통 튀고 커브 길에서는 쏠림과 흔들림이 심했다. 요즘처럼 거의 모든 도로가 포장 됐던 것과는 달리 거의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인 시절이라 울퉁불퉁한 도로에 버스가 기우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. 시골뜨기인지만 차창 밖으로 는 길어 버스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며 빙빙 돌아 어지럽증을 느끼기도 했다. 이로 인 해 처음엔 차멀미가 나 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토하기를 몇 차례 하다 정신을 차려 시골집으로 걸었던 기억도 난다.

편리해진 귀향·귀경길

그래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다. 어쩔 땐 부모님과 함께 가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. 공무원이신 아버지와 가게를 운영하시던 어머니가 아이들을 먼저 보낸 연휴 그 날 저녁이나 다음날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.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버스를 탄 후에는 내릴 곳을 염두에 두고 어디까지 왔나 밖 을 항상 주시해야 했다.

10여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추석을 쇠 러 광주로 오려면 기분이 10시간이나 걸 려다. 그나마 요즘엔 도시시설이 좋아지 고 차량기술도 발전한 데다 인터넷 보급 으로 실시간 교통상황 점검이 가능하고, 도착 시간까지 고려해 출발할 수도 있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른다. 관계기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 량 분산을 위해 공중과 방송과 인터넷,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, 주요 우회도로와 최적 출발시기 등도 제공하고 있다. 더구나 연휴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 마저도 무료다. 또 대부분의 차량들이 하 이패스를 부착,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 람들의 경우 톨게이트 등지에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게 됐다. 시대의 교통 편의성은 많이 달라졌어 도 그러한 부모님과 함께 어릴 적 향기를 품고 있는 고향에서 친지들을 만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추 석은 민족 고유의 명절로서 값어치가 있 다. 고향은 남들이 아무리 막말을 뱉어 내도 자기 자신에선 소중할 곳이다. 타지 에서도 웬지 신경이 쓰이고 항상 그리움 이 용솟음치기도 하며, 누가 뭐래도 거부

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. 이는 내 자신 에게 있어 마음의 터가 자리하고 있기 때 문이다.

고향은 병든 마음 치유하는 곳

또 추억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나 동네 어른들에게 그 동안의 안부를 묻 고, 내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새로운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역할까지 담당해 왔다.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이자,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마음의 위안을 통해 활력을 찾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 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. 그래서 고향은 도시에서 살며 지칠듯 병들었던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. 누구나 외지에서 살다 고향에 발걸음 내딛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끼는 것은 이같은 점 때문이라. 올해 추석연휴가 끝난 지도 일주일쯤 지났다.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고향에서 들뜬 마음과 가족의 사랑을 마음에 되 새기며 그 사이 가슴 속 한 칸에 묻어 있 는 힘겹고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 내길 바란다.

광주시 '일자리 10만개 사업' 걱정스럽다

노동계의 불참선언으로 광주형 일 자리사업이 좌초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민선 7기동안 일자리 10 만개를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. 출발단계에서부터 뭔가 크게 엇 나가고 있는 느낌이다. 이용섭 광주 시장은 지난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'민선 7기 일 자리정책 4년 로드맵'을 발표했다. 이 시장은 이날 로드맵을 통해 '풍요로운 일자리 도시 광주'를 비전으로,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고용률 68%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. 시는 4대 전 략, 10대 중점과제, 80개 세부 추진과 제를 선정, 연도별로 추진한다는 방 침이다. 사실 광주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 용섭 시장에게 적잖은 기대감을 가지

고 있다. 이 시장이 현 정부의 핵심 정 책인 일자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 끌었던 만큼 지역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다. 하지만 민선 7기가 시작되자 마자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노동계가 불참 을 선언하고 이를 발미로 현대차도 받 을 빼려하는 등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. 노동계가 불참의사를 보 인 것은 초임연봉이 시가 제시한 것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.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광 주시의 문제해결 노력은 소극적이 다.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나 발표하는 걸 보면 한숨만 나온다. 광주형일자리가 날아 갈 판에 일자리 10만개를 어떻게 만 들겠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.

정치 목적 가짜뉴스 제작·유통 엄벌해야

최근 유튜브와 SNS 등 인터넷에 '가짜 뉴스'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. 현 정치적인 목적으로 '가짜 뉴스'를 생 산, 유통시키는 조직까지 있다고 한 다. 언론의 자유를 발미로 사회혼란 을 부추기는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해 서는 안 된다.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 라는 것이다.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 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"개인 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 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 가원수와 관련한 터잡은 가짜뉴스까 지 나돈다"며 단호한 대처의사를 밝 혔다. 이 총리는 "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다"는 표현까지 써가며 폐해를 지적했다. 사실 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비 롯한 인터넷에는 국정현안을 흡집내 려는 영상물들이 올라오고 있다. 상

당수는 내용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 는 것들로 일명 '가짜 뉴스'이다. 현 정부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 진 영상물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 되고 있는 것이다. 이런 가짜 뉴스들은 전문가들에 의 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다. 특정한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한 관련 자료 제시를 비롯해서 영상 편집 등 제작 기법과 이를 퍼 나르는 게 아마 주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.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이 조직적 으로 이런 가짜 뉴스를 제작, 유통시 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. 가짜 뉴스는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 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등 온갖 폐해를 유발한다.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르는 세력은 없는지 수사기관은 잘 살펴야 할 것이다.

기고



한은경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장

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이불속에서 느껴지고, 사연 많은 계절을 기록하게 도 지내는 햇곡식과 과일이 우리의 식 탁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, 근사한 가을 이 우리 곁에 한창이다.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마음의 화두에 대 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일 듯 싶다. 잘 익은 벼알수룩 고개를 숙이는 이 치대도 마음의 고개를 숙인 채로 내 마음 이 머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다. 연초에 계 획한 일들이 떠오른다. 실현가능하고,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서 1월에 계 획한 일들, 몇 가지가 있었다. 결과는 어떠한가? 굳이 필자가 언급하지 않아 도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실천에 옮긴

변화를 향한 마음의 무게추

사람들이 매우 극소수란 사실은 잘 알 려져 있는 사실이다. 그렇다. 인간의 변화란 너무나도 어 려운 일이자, 어려운 명제다. 나이든 분 들에게서 간혹 '사람이 변하면 죽는 다'는 말을 들곤 한다.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,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겠다. 그렇다면 극적 인 변화에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 은 사람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? 변화에 성공하기 위한 해법은 필가?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소설 '크리스마스캐롤'에 등장하는 스크루 지 영감에게서 해법을 찾아보자. 온 세 상이 들떠있는 크리스마스이브에 홀로 잠든 구두쇠 스크루지는 꿈에서 과거, 현재, 미래의 크리스마스 혼령을 만나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얼 마나 불행한 사람인가를 깨닫는다. 눈 물과 잠파의 시간을 보내고 꿈에서 깨 어난 스크루지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 작한다. 물론 이것은 소설이다. 그렇다 면 주변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 들의 실제 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는 않을까?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제임스 프 로차스카 연구팀은 스스로 변화에 성공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, 생

각한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들을 위한 변화모델, 즉 '자기혁신프로그램'을 발표하고, 저서도 출판한 바 있 다. 이 모델에 따르면 변화는 무관심, 심사숙고, 준비, 실행, 유지라는 단계 를 거쳐 이루어지는데, 각 단계를 거치 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, 진정한 변화는 대략 2년 이상의 꾸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. 또 한 자신의 변화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파악하고, 단계별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비로소 변화에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. 필자가 일하는 곳에서는 도박중독으 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마음 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방 문한다. 물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 해 비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, 각 자 처한 상황과 문제의 심각도도 다르 다. 그렇지만 이들이 처한 변화단계는 대부분 무관심단계 혹은 심사숙고단계 에 해당한다. 즉, 자신의 도박행동으로 인한 폐해에도 불구하고, 변화(도박행 동을 중단하는 것)에 대한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하고, 주변의 충고나 협박에 떠 밀려 오게 되거나 또는 변화의 필요성 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전 방 식대로의 삶을 유지하는 것과의 사이에 서 망설이는 것이다. 이들을 대상으로

도박행동의 변화를 위한 심리상담과 회복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보 니, 어렵지만(대개 몇 번의 재발이 발 생) 변화(단도박)에 성공하는 사람들 을 만나게 된다. 이들에게서 변화를 위 한 공통점,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데, 바로 '고통'과 '관계'이다. 어떠한 형태와 강도로든간에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, 다시 말해 고통이 존재하 므로, 이들은 변화의 방향으로 발걸음 을 돌릴 수가 있었고, 그리고 이러한 변 화를 옆에서 조건 없이 응원해주는 중 요한 타인, 즉 관계가 있었기에 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. 물론, 그 변화의 중 심에는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 가장 중요했으 리라 본다. 우리 모두에게도 변화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, 또 우리는 변화 하지 않은 채로 일상을 살아간다. 변화 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현 상태 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, 한 견 에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용기를 내 어 변화를 준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다. 이 두 마음 사 이에서 오늘 하루, 우리는 어떤 마음에 변화의 무게추를 두어야 할까?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. 인간은 죽는 그 순 간까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이다.

기고



서재찬 화순경찰서 교통관리계장

가을에 접어들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 가 심해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 개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 특히 단풍구경이나 등산객을 운송하 는 대형버스와 자가용을 이용 출근하는 운전자들의 통행이 많은 이른 새벽시간 대에는 전방의 시야 확보를 매우 어렵 게 만들고 있으며 정상적인 속도로 운 행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

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어느때 보 다 안전운전이 요구 되는 때이다. 작년 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안 개가 낀 날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50여 건으로 전체 사고의 0.1%에 불과하지 만 35명이나 목숨을 잃어 치사율 11.1%로 평균 치사율 2.4%의 4.6배가 넘는다. 기상 상태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, 날씨가 맑은날 2.3%, 흐린날 3.8%, 비 오는날 2.9%로 대체적으로 낮는데 비 하여, 안개가 낀 날은 11.1%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. 그만큼 운전자는 안개 발생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 고 있다. 우리지역은 하루 평균 5만여대의 차 량이 통행하는 국도15호, 22호, 29호 선이 있는데 주야간 도로 옆으로 큰 하천이 흐르고 있어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는 지역이 많다. 또한 안개는 오전 4~8시 사이에 가장

가을 행락철 안갯길 주의해야

많이 발생하고 있어 새벽이나 출근길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한다. 특히 가을 행 락철 전세버스나 대형화물차 등 대형사 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 따라서 운전자들이 안개 낀 날 안전 운행을 위하여 꼭 알아 두어야 할 몇가 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우선 안갯길에서는 반드시 안개등 이나 차폭등을 켜주어야 한다. 안개 낀 곳을 지날때는 우선적으로 자기 차의 존재를 다른 차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 다. 만약 안개등이 없다면 전조등을 켜 주어도 되지만 절대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서는 안된다. 그 이유는 평상시에는 멀리까지 불수있게 해주지만 안갯길에 서는 전조등 불빛이 안개 입자에 부딪 치면서 난반사를 일으켜 앞이 더욱 보 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 의 운전자에게도 시야 장애를 주기 때

문이다. 그리고 감속 운행을 하여야 한다. 몇미터 앞을 반간 할 수 없는 짙은 안 개 속에서는 평상시와 같은 속도로 운 행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앞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게 되면 뒤따라 오 는 차량에 추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개 지 사정에서는 무조건 감속 운행해야 한다. 그리고 안개가 낀 상태에서는 앞이 잘보이지 않으니 앞차의 미등만 보고 앞차의 속도에 따라 바짝 붙어서 따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돌발 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 하여야 한 다. 또 항상 다니던 길이라도 평상시와 같이 방심하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쇄 추돌 및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지켜주는 방어운 전 습관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 다.

특지광장 은밀한 학교폭력 '사이버 불링'

요즘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학교폭 력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학교 에서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전담경찰관을 운영 하는 등 아이들의 안 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 최근 스마트폰의 다량 보급과 함께 새 로운 학교폭력의 형태인 사이버 불링과 같은 신종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. 사이버 불링(Cyber Bullying)이란 소셜네트 워크시스템(SNS)나 카카오톡을 이용 해 특정상대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이 러한 '왕따'와 비슷한 사이버 공간에서 의 폭력을 말한다. 사이버 불링의 유형으로 피해학생이

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하는 '카톡 갑 육',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단체로 욕설 을 하는 방식 등이 있다.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피 해를 입은 친구가 있다면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 거나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17를 통 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. 전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#1170 문자를 보내거나 스 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. 갈수록 진화하는 학교폭력인 사이버 불링을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 과 신고에 힘쓰는다면 근절되는 순간이 다 가를 것이다. /나태환 광주형 7기대수경

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(일간) 회장 박철훈 대표이사·발행인·편집인 김성남 편집국장 정정룡 대표전화 062) 720-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-1098, 010-4601-5323 정 처 부 (062) 720-1060-62 경 제 부 (062) 720-1066-67 사 회 부 (062) 720-1050-54 사 회 2 부 (062) 720-1043-45 문화체육부 (062) 720-1071-72 사 진 부 (062) 720-1040 편 집 부 (062) 720-1070 기 획 실 (062) 720-1005 논 설 실 (062) 720-1032 월 간 국 (062) 720-1006-07 관 리 국 (062) 720-1012 판 매 국 (062) 720-1098 사 업 국 (062) 720-1011 광 고 국 (062) 720-1016-17 기사정보 TEL (062) 720-1050-54 FAX (062) 720-1080-82 E-mail jndn@chol.com 광고문의 TEL (062) 720-1016-17 E-mail jnmi1000@hanmail.net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)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(중흥동, 삼산빌딩) / 구독료 월 10,000원 (1부 500원) 인쇄처 다원인쇄

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
▲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-1366
▲응급질병상담 1339
▲미아·가출인 신고 182
▲여성 긴급전화 1366
▲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
▲아동보호전문기관 1577-1391
▲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
▲응급의료센터 1339
▲여성·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-3117
▲기상예보 131
▲법률구조상담 132
▲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-5666
▲광주 남성의 전화 673-9001
▲광주 여성의 전화 363-7739
▲수도 고장신고 121
▲전기고장 신고 123
▲가스사고 신고 383-0019
▲전남대병원 220-6900
▲조선대병원 220-3114